

中央藥大 同門會報

The Alumni News of th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2012년 2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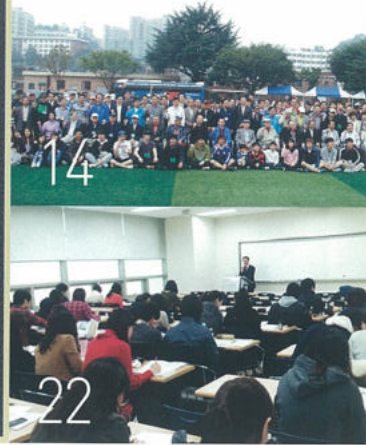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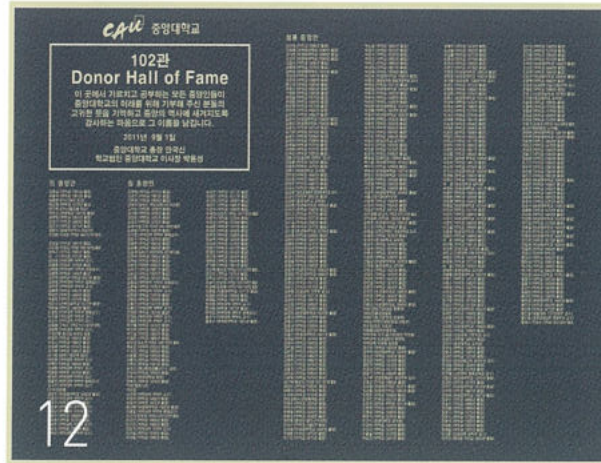
겨울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http://www.caupharm.or.kr>

Contents

2012년 제29호 겨울호



- 시론 3. 세상을 뛰어넘어 함께 나아갑시다! | 서국진(13회) 회장
- 제언 4. 동양 최고의 약학대학으로! 후배들을 우수한 인재로! | 이종각(13회) 부회장
- 동기회소식 6. 15회 졸업 4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며... | 박석동(15회) 동기회장
- 인터뷰 7. 82세 노약사의 따듯한 충고, "항상 주변을 보라!" | 손동현(1회) 명예교수
- 동문회소식 8. 회원동정
- 학교소식 12. 약학관 준공
- 체육대회 14. 2011년 제 41회 모교의 날 체육대회를 마치며
- 지부별소식 18. 제주지부 | 오황영(22회) 지부장
- 문학산책 20. 씨감자·누구일까 | 문영택·장례(1회) 부부
- 심포지움 22. 약학계의 현황과 미래
- 약국도움이야기 26. 약사의 전문성과 직능 향상을 위한 제언 | 박기배(20회) 대한약사회 부회장
- 만평 28. 희망의 등대
- 29. 청고(淸高): 북소리 들으며 | 허인회(4회) 명예교수
2011년도 2학기 장학금 수여식
발전기금 조성 내역
물방울 장학금
편집후기

중앙약대 동문회보

인쇄 : 2012년 1월 25일

발행 : 2012년 1월 31일

발행인 : 서국진 | 편집인 : 김기명

발행처 :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번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612호

전화 : 565-1700 팩스 : 564-1701

인터넷 : <http://www.caupharm.or.kr>

E-mail : capa21@hananet.net

기획·인쇄 : (주)YSP

전화 : (031)955-0150(대) 팩스 : (031)955-0159



세상을 뛰어넘어 함께 나아갑시다!

평소 본 동문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문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정성을 모아 주신 학교발전기금 모금사업(2002년~2011년)은 약 61억여원의 기금이 초석이 되어 동문님들의 염원이었던 “약학대학 및 R&D센터”를 2011년 9월1일 에 준공하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면을 빌려서나마 동문님들의 큰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문 선후배 여러분!

중대약대동문회 장학기금 및 지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금총액 : 425백만원
- 2. 총동문회 장학금 지급액 : 전·후반기 각 3명×3백만원×2회=1800만원.
- 3. 기타 동문장학금 지급액 : 약품물리반(100만원), 약제반(100만원), 여동문회(50만원×2명), 부산동문회, 안산동문회(각50만원씩), 나사모(100만원)

존경하는 약대동문회 선후배 여러분!

대한민국 의생명공학 및 약학의 발전과 더불어 모교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인재의 육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장학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동문회와 본교 교수님들이 뜻을 모아 장학기금 확충사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전 동문들이 함께 참여하고 나눔을 실천 할 수 있는 “장학기금 모금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방울이라도 세월이 지나면 큰 바위를 뚫듯이(水滴穿石) 작은 노력이라도 끊임없이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듯 그간 모교 발전과 후배들의 육성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해주신 것이 밑거름이 되어 저희 모교도 대한민국을 뛰어 넘어 세계적인 약학대학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동문님들의 모교사랑, 동문사랑의 결과물이라 감히 생각해 봅니다.

특히, 재학중 각종 장학금(대학, 동문회)의 수혜를 받은 동문들께선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결초보은(結草報恩)”의 심정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문 선후배 여러분!

침체된 약업경기와 불투명한 미래환경, 그리고 깃뻛힌 약사님들의 자존심.

어느 것 하나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는 심정으로 단결과 사랑, 자기희생과 봉사 정신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세상을 뛰어 넘어 함께 나아 갑시다.”

“약대동문회 장학기금 확충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임진년 새해 동문님들의 가정에도 평화와 행운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문회장 서국진

동양 최고의 약학대학으로!

후배들을 우수한 인재로!



이종각(13회) 부회장

1965년 당시 동아일보 1면에 “중앙대 약대 전국 최고 경쟁률 18.8:1”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그 해 지원자로서 크나 큰 자긍심을 가지고 중앙대 약학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13회로 졸업한 후에는

40년 동안 제약사, 병원 근무,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항상 명문 중앙대 약대를 나왔다는 자부심으로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먼저 오늘의 명문사학 중앙대 약대의 발전이 있기까지 모교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신 동문 선배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로 55회 7,200여 명의 동문을 배출한 우리 중앙대 약대는 1956년 4월에 미국 Gustavs Louise Pfeiffer 여사의 약대 건축 기부금 10만 불을 당시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에 의해 전달받아 2,500여 평의 4층 건물 파이프홀이 준공되면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는 당시 동양 최대 규모의 약학대학이었으며, 실험시설은 전국 제일의 수준을 자랑했

습니다.

이처럼 영광스런 출발을 한 우리 중앙대 약대는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총 61억 원이나 되는 발전기금을 모았고, 두산그룹이 총 650억 원을 들여 지난 9월 1일에 지하 4층, 지상 11층의 총 면적 11,624평 규모의 약대 및 R&D센터를 준공했습니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연구 및 학습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중앙대 약대의 위용을 갖추게 되었을 뿐 아니라,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는 중앙대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었으니 감회가 새롭고 기쁘기 한량 없습니다.

특히 대학 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전 13대 유영후 약대 동문회장이 활발한 추진력으로 애를 써주신 덕분에, 당시 사무총장을 맡아 동분서주했던 13회 동기인 현 18대 서국진 동문회장 임기에 타 대학이 부러워하는 약학관을 갖게 된 것을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약학대학 6년제 학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훌륭한 약학관 개관으로 학문단위 재편성을 통해 국내 어느 대학보다도 약대 6년제 학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임상 약학교육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선배 약사들이 활동하던 시기만 해도 한약과 양약을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었고, 의약분업 전이라 비교적 자율적으

로 조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졸업 후 약국을 개업하면 어느 정도는 경제적 기반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진출할 6년제 후배들은 전국 각지의 약학대학 졸업생이 2,000명 이상 배출되는 가운데 경쟁이 치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앙대는 후배 학생들이 약업계 전문분야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뚜렷한 목표의식과 치열한 노력만이 현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향후 약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이 쉽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기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후배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마음을 보내며, 약사로서 걸어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작은 의견이라도 제시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약대 졸업 후 다양한 분야에서 40여년 간을 활동해온 내가 지금 약대생으로 돌아간다면 어느 분야에 도전하고 싶은지 자문을 해 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명석한 6년제 예비약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분야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근무하기를 권합니다.

다국적 제약회사와 같은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하려면 젊음을 불태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내공을 쌓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 직장에서 인생의 승부를 걸어볼 각오가 되어 있는 후배들에게 이 길을 추천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높은 연봉과 함께 외국생활의 기회까지 얻을 수 있으니 도전해 볼만 합니다. 필수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졸업 전에 자유로운 영어구사 능력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둘째, 집안의 경제적 뒷받침이 되고 미래에 대한 강한 도전의식이 있는 후배들은 석사, 박사를 취득한 후 보사부 산하 국립보건원, 각 시도 보건환경 연구원, 환경부 국립과학원 등에 들어가 연구관 생활을 하거나 약대나 의대에서 교수생활을 하기를 권합니다.

뜻 깊은 연구 활동을 할 수 있고, 정년 후에는 일반 공무원보다 연금을 후하게 받을 수 있는 분야임으로 권해 드립니다.

셋째, 공직약사를 추천합니다.

공무원으로서 행정력을 발휘하여 보람을 가질 수 있는 분야로 식약청, 각 시도 약무직 공무원, 국립병원, 시립병원 근무 등의 출로가 있습니다. 약사는 7급 공무원으로부터 출발하며 20년을 근무하면 연금수령이 보장됩니다. 만약 첫 출발부터 높은 수준을 원한다면 행정고시 합격, 변호사 자격 및 변리사 자격의 획득을 향해 매진해 보십시오. 이러한 경로로 고위 공직자도 가능하니 멋지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영으로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권합니다.

우선 수출입 업무를 배워 실무를 쌓은 후 도전하면 약국 운영보다는 전망이 밝습니다. 무역실무, 무역이론영어, 무역영어, 외환관리법, 외자도입법 등을 공부하여 실력을 연마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약국 운영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으니 후배님들은 다양한 전문분야에 도전하여 앞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에서는 예비 약사들이 앞날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약학계의 현황과 미래에 관한 심포지움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약학대 동문회 선, 후배님들께서는 지난 체육대회 날 1회 손동현 교수님께서 거금 3,000만원을 장학금으로 회사하신 아름다운 기부문화를 본받아 후배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장학기금 조성에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에 죽고 참에 사는' 중앙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선후배 동문 여러분의 행운을 빕니다.

15회 졸업

4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며...



박석동(15회) 동기회장

나는 엇그제 추운 겨울날 아침 장항선 열차를 타고 내 고향 충청도 최남단 서해안 고향을 다녀왔다.

명절날이면 교통이 워낙 복잡하고 두 세시간 걸리는 고향길이 일곱 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나는 가끔씩 토요일 오후에 출발해서 일요일 늦게 서울집에 도착하는 것이 고향방문길의 습관이 되어 버렸다.

고향엘 가면 나는 먼저 돌아가신 할아버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선산에 간다. 멀리 금강이 유유히 흐르고 저 만큼 금강하구 뚝이 보이는데, 어렸을 적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 산에 갔을 적에는 조그마한 소나무들이 이제는 엄청나게 훌쩍 커버린 모습을 보고 참말로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저번날 우리는 약학대학 졸업 40주년 기념행사를 이태원 해밀턴 호텔에서 가졌다.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강산이 네 번이나 변했으니 분명 세월은 유수와 같이 많이 흘렀다. 그날은 형제 같은 동기들이 모이는 자리였는데, 우리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학창시절 은사님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많이 참석해 주셨고, 우리 동기들 또한 거의 참석해서 가슴 뿌듯한 큰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뿐이었다. 인생에는 연극처럼 연습이 없고 한번 살다가면 그만이며 과거로 거슬러 갈수도 없고 인생을 한번 더 살수도 없다. 우리의 인생은 끝나면 그걸로 끝이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우리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본다.

저번날 우리는 약학대학 졸업 40주년 기념행사를 이태원 해밀턴 호텔에서 가졌다.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강산이 네 번이나 변했으니 분명 세월은 유수와 같이 많이 흘렀다. 그날은 형제 같은 동기들이 모이는 자리였는데, 우리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학창시절 은사님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많이 참석해 주셨고, 우리 동기들 또한 거의 참석해서 가슴 뿌듯한 큰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뿐이었다. 인생에는 연극처럼 연습이 없고 한번 살다가면 그만이며 과거로 거슬러 갈수도 없고 인생을 한번 더 살수도 없다. 우리의 인생은 끝나면 그걸로 끝이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우리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본다.



멋지게 나이드는법의 저자 석학 “도티빌링턴”은 말하기를 “인생은 활기차고 활동적으로 살아야하고 나이가 몇 살이든 나이에 연연하지 말고 청춘같이 살라”고 말했다. 자!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자.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은 듣지 못할망정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은 들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멋지게 나이 드는 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끝으로 졸업 40주년 기념 동기회를 위해 수고한 동기 김용의 총무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82세 노약사의 따끔한 충고, “항상 주변을 보라!”

중앙약대 1기이자 대한민국 약학의 역사 함께 한 손동헌 교수의 기부이야기

■ 손동헌(1회) 명예교수

제시대를 거쳐 대한민국의 수립과 지난 60년 우리나라의 약학 발전과 변화를 경험하며 사회의 분화와 고도화, 세분화가 약사 사회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반면 “요즘 직장이 없다, 실업률이 높다고 말이 많지만 예전에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회사나 일자리가 없었다”며 “세상이 좁다 말만하지 말고 더 넓은 곳을 향해 나아가라”는 뜻을 후배들에게 전하기도 했다.

“지금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주변을 돌아보라”

손동헌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중앙약대 정년퇴임)는 2005년과 2010년 각 500만원의 기부에 이어 3000만원이라는 거금을 학교에 기부하며 과거의 그와 지금의 그를 이 자리에 있게 한 뜻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것은 입 발린 ‘사회 환원’이 아닌 동병상련(同病相憐)에서 나오는 ‘보답’이었다. 그는 “학교가 나를 키워주고 먹여주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줬다. 없는 것이나마 최대한 보답할 것”이라며 “내가 보지 못한다고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주변에는 나와 같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다”고 속마음을 열었다. 과거를 회상하며 그는 이야기기를 이었다. 그 와중에도 손 교수의 눈에는 회한이 아닌 미래를 향한 열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는 한 그가 받은 바를 충분히 풀어나가겠다는 의지의 열기였다. 홀로 사는 삶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며 서로가 직간접적으로 서로를 도우며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은 그의 말은 단순히 교수, 약사로서가 아닌 인생의 황혼을 넘은 어른의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한편 손 교수는 발전기금을 전하는 자리에서 “조금이나마 그간 받은 바를 갚은 것 같아 기분 좋다”며 “모든 이들이 서로를 보듬고 생각하며 돕고 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함께 참석한 서국진 중앙약대 동문회장에게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닌 어렵고 힘들게 공부하는 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작은 돈이지만 그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손 교수는 이날 전달한 500만원과 함께 퇴직연금 중 매달 100만원씩을 약대장학기금으로 전달, 2013년까지 300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2011년 11월 17일 약사공론 기사중



1930년 4월, 함경남도 북청에서 태어나 49년 북청농업전문학교 수의과를 졸업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립가축위생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어느 날, 포성이 울리며 전쟁이 발발했다. 동족간의 상잔이란 비극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 전문직이란 이유로 동원령에서 제외된 그는 그길로 아버지와 함께 단 둘만의 목숨을 건 원행에 나섰다. 38선을 넘었다.

그의 발이 멈춘 곳은 부산의 영주동. 그곳에서 그는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미군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하루하루를 근명했다. 1953년 어느 날도 어느 때와 같이 깡통에 밥을 먹으며 하루를 근근이 버티고 있었다. 그러던 그의 눈을 잡아끄는 것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개교와 입학생 모집 공고였다. 그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미군부대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입학금을 마련해 어렵사리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웠던 그에게 점심은 사치요 교통비는 허영이었다. 영주동에서 학교가 있었던 송도까지 걸어다니며 점심이면 동기생들과 반대쪽으로 몸을 피해 주린 배를 물로 채우며 학업을 이어 본지와와의 만남을 빌어 후배들에게 사랑과 그 간의 깨달음을 전했다.

“지금의 약사사회와 약학의 자리에 만족치마라! 세상이 좁다 뛰쳐나가라”

역사의 산 증인으로 지금까지 경험한 약학과 약사사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손 교수는 지금의 약학과 약사, 약사사회에 안타까움과 기대를 함께 드러냈다. 먼저 그는 “약학의 범위가 좁아지고 세분화되며 약사의 직능이 축소되고 약사사회가 약국 위주로 좁혀졌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일

8월 22일

삼진제약 조의환(8회) 회장 1억 네이밍도네이션

8월 25일

제2차 회장단회의



- 장소 : 동문회관
- 안건 : 1. 동문회관 이전 및 임대료 활용방안의 건
2. 모교의 날 준비의 건
3. 테니스대회, 골프대회, 체육대회 일정의 건

8월 27일

동문회사무실 모교 약학대학(102관 612호)으로 이전

9월 1일

준공식 및 회관 입주식



9월 7일

은평구약사회 자선다과회 [전광우(18회) 회장]

9월 18일

제41회 모교의 날 테니스대회



· 장소 : 안산시립호수테니스장

9월 20일

여동문회의



· 장소 : 동문회관

9월 26일

제 41회 모교의날 골프대회



· 장소 : 8·8 CC

9월 28일
의약학계열 개소식



9월 30일
관악분회 모임



10월 7일
관악구약사회 자선다과회 [윤건섭(19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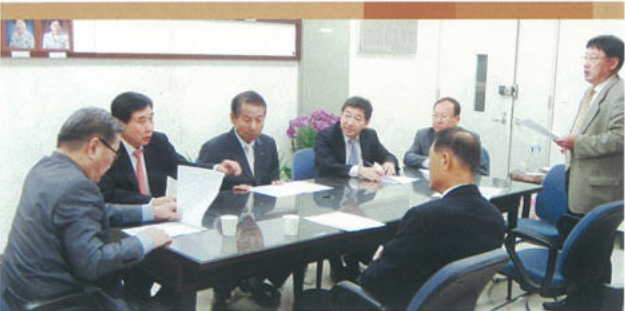
약학대학 심포지움개회



9월 29일
서흥갑셀 양주환 회장 명예박사 수여식



장학기금운영위원회의



· 장소 : 동문회관

10월 9일
제41회 모교의 날 체육대회



· 장소 : 중대부중운동장

9월 30일
2011년 2학기 장학금수여식



10월 11일
구주제약 김명섭(5회) 회장 동문회장학기금 1억 전달



10월 13일

29호 동문회보 제작 편집회의

10월 15일

제25회 졸업 30주년 기념행사



· 장소 : 르네상스호텔

10월 20일

노원구약사회 자선다과회 [김성지(17회) 회장]

강남구약사회 자선다과회 [황규진(24회) 회장]

발전기금운영위원회



· 장소 : 교수세미나실

제3차 회장단회의



· 장소 : 동문회관

- 안건 : 1. 모교의 날 체육대회 보고의 건
- 2. 초도이사회 준비의 건
- 3. 장학기금에 관한 사항의 건
- 4. 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의 건

10월 25일

마포구약사회 자선다과회 [양덕숙(28회) 회장]

11월 5~6일

전지초도이사회의



· 장소 : 강원도 철원 그래미 연수원

11월 14일

손동헌 명예교수 장학기금 전달



11월 19일

15회 졸업 40주년기념 행사



11월 20일

35회 졸업 20주년 기념 행사

· 장소 : 어양

11월 26일

약사회지부장 및 분회장 모임



· 장소 : 안동장

12월 8일

제4차 회장단회의 및 송년회



· 장소 : 베이징코아

12월 10일

서초분회 모임

18회 동기회 모임

12월 17일

수원분회 모임

12월 23일

흑중회(병원약사위원회)



· 장소 : 동문회관

12월 26일

교수송년회



· 장소 : 울돌목

1월 5일

신년교례식



장소 : 동문회관



약학관 준공, 비상(飛翔)의 나라를 펴다

2011년 9월 1일, 최초 기획에서 완공까지 9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숱한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내고 동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에 더해 새 재단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약대 6년제라는 커다란 변화의 와중에서 새롭게 비상하고자 하는 약학대학의 위상에 걸맞는 위용을 자랑하며 약학대학 및 R&D 센터(102관)가 문을 활짝 열었다.

1일 오전 11시, 102관 지하 1층 중정에서 안국신 총장, 박용성 이사장, 박범훈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등 1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102관 준공식이 열렸다.

안국신 총장은 "바쁘신 중에도 준공식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신축한 102관의 최첨단 연구시설을 통해 뛰어난 연구성과 창출과 우수인재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약학대학 및 R&D센터는 지하4층·지상11층, 연면적 38,406㎡(약 11,618평) 규모로

약학대학, 연구시설과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며, 친환경 건물로 설계되어 현재 친환경 본인증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어 오후 5시, 102관 6층 612호에서 고문단 및 회장단, 모교 교수진을 비롯하여 약학관 신축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아끼지 않은 동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 서국진 회장(13회) 주관으로 동문회 입주식이 진행되었다.

모교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밑그림인 약학관 준공이라는 시대적인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새롭게 비상하는 약학



2011년 제 41회 모교의 날 체육대회를 마치며....



2011년 9월 1일, 약업계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2년여의 실제 공사 끝에 숙원이던 '약학대학 및 R&D 센터'가 드디어 준공을 하게 되었다. 많은 동문들이 십시일반으로 기부한 모교 발전기금이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한국의 중앙에서 세계의 중앙으로 웅비하는 모교의 모습에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끼며 2011년 <제 41회 모교의 날 체육대회>의 서막이 올랐다.

9월 18일 그 어느 종목보다 열혈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테니스대회>가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동문들의 성원 속에 안산시립 호수 테니스장에서 개최되었다. 안산지부(회장 김덕진 27회)의 세심한 배려와 지원에 힘입어 40여명의 동문이 화창한 날씨 속에서 화합과 격려의 미덕 속에 열기를 끌어 올리며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우승의 영광은 상병준(9회), 서정래(25회) 동문에게 돌아갔다.



9월 26일 88골프클럽에서 진행된 <골프대회>는 1회 손동현 명예교수님을 비롯해서 80여명의 동문이 참석하여 그야말로 중앙대 약대의 기치가 전체 그린을 뒤덮을 정도의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버디면 어땀고 보기면 또 어땀가. 오비가 나도 마치 홀인원이라도 한 것인 양 서로 호응해주고 호흡을 맞춰 주니 선후배의 차이조차 남의 일이 되었던라. 프로로 전향해도 좋겠다는 덕담을 주고받으며, 그러나 대표로 출전한 개인과 지부와 동기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끝에 개인전 우승은 허영(16회), 이강욱(26회) 동문이, 지부 우승은 안양(회장 박영달)이, 동기회는 26회(회장 김안식)가 차지하였다.

10월 9일에는 중대부중 대운동장에서 <모교의 날 홈커밍 데이 및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수년 전부터 회장단과 특히 젊은 임원들의 적극적이고 솔선수범하는 노력에 힘입어 체육대회가 전에 없이 성황리에 개최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바, 당연히 금년에도 많은 내외빈을 모신 가운데 서국진(13회) 동문회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한갑현(26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개회식이 시작되었고, 선수대표로 나선 길봉진(39회), 신순옥 (39회) 동문의 우렁찬 선서를 신호로 출발의 호각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다.

지난해 동문 체육대회 40년을 기념하는 특별 이벤트로 26회 동기들이 벌인 200미터 운동장 211바퀴 이어 달리기의 감흥이 아직도 생생한데, 금년에는 그 취지를 전체 동문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승화시키자는 각오 아래 각 기수별 운동장 이어 달리기를 채택하게 되었다. 백

발 성성하신 1회 동문 선배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올해 신입생 후배까지, 깃발과 피켓을 들고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달리는 모습이 1953년에서 2011년까지의 약대 동문 역사를 한 눈에 보는 듯 감회가 밀려왔



다. 작년에도 이 행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울트라 마라톤 완주자로 철인의 명성을 보유한 박주돈(26회) 동문의 리드 하에 때로는 한두명이, 때로는 10여명의 동문들이 기수를 초월하여 서로 밀고 끌어주는 화기에애한 모습이 이를 지켜보는 모든 동문들의 가슴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뿌듯함과 만족감을 심어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모든 기수와 같이 뛰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강철체력을 과시한 모교 손의동(22회) 교수의 참여가 화제에 올랐다.

지난 해와 같이 오전에는 팀별 경기, 오후에는 청백전 경기로 나누어 선후배와 동기들과 함께 땀 흘리며 즐겁게 웃는 모습에 맑은 가을 하늘은 더욱 티없이 푸르렀다. 축구, 바둑, 줄넘기, 제기차기, 윷놀이, PK차기 등 팀별 경기를 마치고 짝수 홀수기로 나눈 청백전 경기로 축구, 줄다리기, 계주가 연이어 펼쳐졌다. 운동장 주변에선 각 팀별로 준비한 현수막이 바람에 날리고, 식당간 천막 안에서는 오랜만에 만난 선후배 동기간의





오고 가는 정이 넘쳐 흘렀다. 특히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은 동문 가족들의 참여가 올해도 이어져 여기저기서 흐뭇한 광경이 연출되어 모임의 참 의미를 높이는 데 큰 자양분이 되고 있음을 강조해야겠다.

여동문회에서 정성으로 봉사한 어묵탕이 각별한 맛으로 피로에 지친 동문들의 속을 달래주는데 1등 공신이 되었으며, 지부며 동기회별로 준비한 정으로 버무린 푸짐한 음식과 함께 나는 막걸리잔이 하늘같이 쌓여 드디어는 추가로

긴급 공수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찾아가서 한잔, 지나가다 붙들려 한잔, 일부러 불러서 한잔, 게임에 이겨서 한잔, 열심히 했는데도 져서 한잔, 선배님을 위해서 한잔, 후배들을 위해서 한잔...

대회 결과 대망의 종합우승에는 병태생리반(심상수 교수 26회)이, 동문 체육대회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린 최다 참가상에는 28회(회장 이병친)가 이름을 올려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27회 동기회(회장 김정호)가 내놓은 행운상 대상(TV 겸용 모니터)은 이재진 동문(13회)이 행운을 차지 하였으나 동문회 사무실에 기증하는 것으로, 또한 협찬받은 자전거를 선택받은 최민규(16회) 체육이사는 역시 최근 몇 년의 모교 관련 행사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안산동문회에 기증함으로써 선후배 화합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달려 온 체육대회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이끌어 냈다.

폐회식에서 마이크를 넘겨받으신 1회 손동헌 명예교수님의 장학기금 삼





천만원 쾌척은 모든 동문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기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비록 적은 돈일지는 모르겠으나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저에게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모교를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며 그 일부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적은 돈이나마 보태겠습니다.” 모교 사랑에어나 처한 환경이, 현재의 형편이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진리를 일깨워준 노교수님의 말씀이 진한 감동으로 다가 온, 잊혀지지 않을 2011년의 멋진 가을날이 되었다.

동문 여러분, 다시 한 번 화이팅!



제주지부



오황영((22회) 지부장

일주일가량

내린 비가 그치고 모처럼 상쾌한 일요일 아침, 중대약대 제주동문회가 한라산을 넘어 서귀포 올레길을 걸으러 떠나기로 했다.

집결지인 게이트볼 주차장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든다.

특히 원로 선배님들께서 먼저 동부인하여 나타나신다.

56학번 문창하 선배님, 고정식 선배님을 필두로 58학번 문종찬 선배님, 65학번 고명식 선배님, 66학번 박기진 선배님, 멀리 한림에서 오신 69학번 김성탁 선배님 등등..

재무를 맡고 있는 96학번 고정봉 동문은 가족이 모두 나왔다.

앞서신 고정식 선배님과 85학번 고봉효 동문은 부자지간이면서 동시에 29년 차이의 선후배 사이이다. 같이 나오는 날은 마치 대가족 나들이하듯 따뜻한 분위기에 보는 이들의 부러움을 자아낸다.

중대 약대 제주동문회는 원로 선배님들께서 오랜동안 모임을 잘 다져놓으셔서 그 단합된 힘이 굳건한 한라산처럼 든든하다.





전체가 모이는 때는 일년에 두번인데 한번은 봄에 총회를 개최하고, 가을에는 오늘처럼 야유회를 갖는다.

원로 모임은 74학번인 내가 막내이고 67학번 강용순 선배님이 총무를 30년 가까이 해오고 계시면서 매달 모임을 가지며, 80년대 이후 학번은 3개월에 한번씩 모임을 갖고 총무는 김충환 약사가 맡아서 하고있다.

대절해 놓은 버스 옆으로 김미향 약사가 배시시 웃으면서 얼굴을 내민다.

젊은 층 중에 자주 나오는 회원이며 오늘도 집안의 제사때문에 같이가지는 못 하지만 일찍 나와 이것저것 챙기며 일일이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를 건넨다.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하늘이 더욱 맑고 청량해 보이며, 모두의 기분이 가벼워진다.

91학번 김귀일 동문과 고정봉 동문은 어렸이때문에 승용차로 따라온다.

이제 출발. 5.16도로를 구불구불 올라간다.

아직도 푸르름이 남은 숲과 새 가을을 맞은 단풍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차창밖으로 시원하고 아름답게 지나간다.

버스가 오르막길을 힘겹게 성판악에 도착하니 길 양쪽으로 차량행렬이 줄을 섰다.

단풍을 구경하러 온 인파에 지나가기가 힘들 정도다.

한라산 단풍은 신록으로 시작하여 높이마다 나무와 색채가 다양하고 숲이 깊으니 이즈음의 한라산을 세상 어느 경치에 비할까.

오랜만에 타는 버스라서 살짝 멀미가 날 때 즈음 쇠소깍에 도착했다.

서귀포모임을 맡고 있는 이석원 동문이 반갑게 맞이한다.

쇠소깍은 화산암 지하를 흐르는 물이 분출하여 바닷물과 만나는 깊은 웅덩이로 제주에만 있는 신비로운 지형이다.

지하강물의 시리도록 푸른빛은 수백년 세월에 이루어졌음에도 바로 오늘 내 눈앞에 살아 일렁이고 있다.

우리들은 검은 모래가 유명한 쇠소깍앞 해변에서 시작하

여 황토색 흙밭길에 접어들었다. 화산암이 부서져 만들어진 깨끗한 모래가 걸음마다 발끝에서 가볍게 튀어오른다.

젊은 두 동문은 옆길로 새터니 가까운 제지기 오름을 날렵하게 다녀오기도 하였다.

나머지 일행이 보목포구를 지나 소정방폭포에 다다르니 이석원 동문이 꿀을 사서 나누어준다.

목 마를 때 때맞추어 먹는 꿀은 입안 가득 수분과 향기가 머물며 전신의 피로를 풀어준다. 힘겨운 걸음에 시원하게 부는 바람은 한라산 영신이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는 듯하다.

보목포구는 오돌오돌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자리물회로 유명하며, 매년 자리돔축제가 열리는 곳이다.

정방폭포는 진시황의 불로초를 구하러 왔다는 서불이라는 이에 얽힌 전설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걸을 스치고 지나가는 아름다운 잠목숲과 눈 앞에 펼쳐진 광활한 태평양과 절경인 해변. 우리는 가을의 선명한 햇빛이 보여주는 자연을 몸으로 느끼며 2시간 30분여를 걸어 드디어 서귀포 목적지에 다다른다.

여행의 큰 즐거움은 먹는 것이라 맛있고 푸짐하기로 유명한 쌍둥이횃집에서 하루의 여정을 접는다.

동문들은 선배님 후배님 할 것 없이 섞이고 어우러져 도란도란 정다운 이야기를 안주로 흥겹고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

반가웠던 동문 여러분들에 감사하고 늘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씨감자

문영택

두툼한 꽃잎 찾아
별 나비 자주 찾아오더니
낮보다 밤이 길어지던 날
잠자리에서 튕겨져 나온 씨감자
낮선 여인의 장바구니 속에 잡혀왔다

가죽이 얇아 보드라운 몸
털 한 점 없는 앞가슴
그리고
기름진 궁둥이 살이
칼날 든 여인의 식욕을 돋우었나 보다

두메산골에서부터
제 몸 쪽 내어 새끼 치는 버릇
움푹 패인 눈두덩 속에 깊이 감추고
발가벗기어진 채
딱딱한 토마 위에 누어져 있다



누구일까

장례(1회) 고문

누구를 기다리는지 나는 모른다
 무턱대고 기다리는 심정이다
 붉은 매화를 기다림인지
 목련의 자색 교태를 기다림인지
 몇 시간 뒤에 빨리 나가 봐야지
 누가 와서 날 기다리고 있는지
 미소를 머금고 기다려 줄 것 같은 마음이
 두근거리는 마음 설레기만 한데
 사실은 어두운 정적 속에 손가락을 짚어 봐도
 기다려줄 이도 찾아줄 이도 없다
 산수유 노랑 처녀와 하이얀 매화가 기다리는 마음에 실려
 나도 기다려 보고 맞을 준비를 하면서
 모처럼의 설렘을 느껴 본다
 이렇게
 또다시 4월의 하늘 속에
 빈 마음을 맡겨 보면
 언제인가 잊어버린 청춘의 꿈이 다시 올지 모른다고
 누군가 귓속말 소곤거리는 것은 봄각시인가 보다

돌아본 시간... 책 제목에서 느끼듯 아름다운 부군과의 추억을 기리며 '책 전반에 맑은 영혼, 감동적 울림이 따뜻하게 가슴에 밀려온다. 한 평생을 함께하며 사랑의 내조를... 먼저 하늘로 떠난 부군과의 감회... 홀로 여생을 보내면서 출간한 시집의 깊은 의미를 되새겨 본다.

- 본 회 여동문화 장례(1회) 고문과 부군이신 문영택 님의 시를 합본으로 엮은 시집 '돌아본 시간'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약학관 개관기념 심포지움

약학계의 현황과 미래

2011년 10월 7일 오후 2시, 102관(약학대학 및 R&D센터) 3층 대강당에서 '약학관 개관기념 심포지움'이 열렸다. 황완균 약학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 김대경 약학대학장, 김기호 명예교수(약학부), 허인회 명예교수(약학부), 서국진 약대 동창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약학계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움은 조양연 대한약사회 연수교육이사의 '약사의 직능과 약국의 발전방향', 이광섭 건국대학교병원 약제부장의 '병원약사의 현황과 미래', 최재희 건일제약 기획본부장의 '제약산업계의 미래화 전략', 강춘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수석심판관의 '한미 FTA에 따른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와 우리의 과제', 서동철 교수(약학부)의 '의약품평가관련 기관에서의 약사의 역할' 등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급변하는 약업계 주변을 둘러싼 불안정한 기류 속에서 다양한 실무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의 생생한 경험과 비전을 바탕으로 최근 약학계의 현황과 문제점은 물론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후배 예비약사들에게 제공하는 자리였다는데 큰 의미를 두었다.

병원약사의 현재와 미래



이광섭(24회)
건국대학교 병원 약국장

1. 병원약사란

병원약사는 병원 내에서 약물에 관한 감사, 조제, 복약지도 등 약품관리 전반에 걸쳐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약품조제 업무가 점점 기계화 되면서 현재는 환자치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약물치료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처방을 내도록 Guideline을 정하고 회진에 참여하는 등 의료인의 한 역할로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2. 병원약사 업무의 변화요인

과거 조제위주의 업무에서 영역을 더 넓히고 변화를 가져오게 된 건 많은 대내외적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이다.

① 의약분업의 시행

2000년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기존 약국과 병원 약국의 역할이 변화되어 원외약국에서 외래환자 조제 및 복약지도를 담당하고 병원약국에서 입원환자 위주의 약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의약분업 이전 병원약국은 외래환자 조제

에 더 많은 공간과 인력이 투입되었으나, 의약분업후 입원환자 위주의 약제서비스 업무를 더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② 정부의 보험정책

정부 보험정책의 변화가 빠르고 그 영향력이 크게 되면서 약제비 적정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등 보험 정책이 발전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약물사용 재평가제도 실시가 이루어지면서 적정한 약물사용에 대한 역할이 필요하게 되었다.

③ 의약품 사용의 합리성 및 안전성 강화

소비자의 의식이 높아지고 정보가 범람하면서 의약품 사용의 합리성과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 업무에 대한 약사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④ 의료기관 인증제도

2010년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의료기관인증제로 전환, 시설이나 외형에 의한 의료기관 평가가 아닌 업무, 환자안전, 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약제서비스의 질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⑤ 약학 교육연장

6년제로 약대업무가 전환되면서 병원 임상약제 업무에 대한 교육에 병원약사의 역할이 요구되었다.

⑥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기대 증가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및 삶의 질에 대한 환자들의 기대 수준 증가와 의료기관평가 결과 공표 등 의료기관 및 의료진에 대한 각종 정보, JCI 등 국제공인 병원평가제도 확산 등으로 환자들의 병원 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이 올라가고 있다.

또한 외부환경의 변화로는 의료시장의 환경변화, 병원내부의 역할변화, 의료소비자들의 요구증가 등이 있어 병원약사의 업무가 변화하고 있다.

3. 병원약사의 업무

현재 병원약사의 역할은 처방조제 중심에서 환자중심의 약제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

병원약사의 업무는 크게 조제업무와 임상지원서비스업무, 약품정보서비스업무, 약품관리업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조제업무

외래환자, 입원환자 조제 및 주사조제, 제제조제(제품화되지 않는 약품)가 있으며 병동입원환자 조제에 UDS(Unit dose system, 환자별 개별 카트에 약품보관, 운반) 등을 도입하여 안전하고 합리적인 조제 System을 구축하고 있다.

② 임상지원서비스 업무

임상약동학 자문업무, 영양수액 자문업무, 항암제 자문업무, 병동 회진참여 팀의료에 참여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의 평가와 치료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별적으로 환자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도출 한 후 이를 바탕으로 팀에서 해결방안을 설정하고 수행, 약물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③ 약품정보서비스 업무

약품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평가(DUE, 약물사용에 있어 미리 설정된 기준(criteria & standards)을 이용하여 그 적절성(appropriateness), 안전성(safety) 및 효율성(effectiveness)을 객관적으로 평가하



여 feedback함으로써 약물사용의 질을 향상시키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의 질 개선(Quality Improvement) 활동에 참여, 처방의 Guideline을 제시하고 병원내 약물정책에 관여한다. 또한 약품 및 약제업무에 관한 전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그 역할을 맡고 있다.

④ 약품관리업무

병원내 약품의 입출입과 적정한 재고관리 및 전반적 약품 사용에 관한 업무

4. 미래 병원약사의 역할

미래의 약사는 International Pharmaceutical Federation(IPF: 국제 약학연맹)에 의하면 보건의료인(Caregiver), 의사결정자 (Decision maker), 의사소통능력자(Communicator), 지도자 (Leader), 평생 학습인 (Life-long learner), 교육자 (Teacher)로서 사회에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한다.

병원에서 미래의 약사역할은 의료진과 환자의 중간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약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 개개인의 약동학적 특성 및 약력을 파악하여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의료진의 일환으로 그역할을 하며, 변화되는 보험정책 및 재정과 병원의 경영 등을 고려 앞으로 약사의 역할이 더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될것이다.

약사직능과 약국의 발전방향



조양연(32회)
대약 연수교육이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최첨단 약학관 개관을 축하하며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의 출발점에서 모교 교수님과 후배님들을 모시고 약사직능과 약국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약사(藥師)는 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의료전문가이며, 藥事란 의약품, 의약외품 및 의료용구의 제조·조제·감정·보관·수입·판매 등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약사법 2조, 보건의료기본법 2조). 약사의 사회적 직역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주 업무로 하는 약국약사와 병원약사, 의약품 제조·품질·유통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산업약사, 의약품 행정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공직약사 등으로 세분화된다.

약사직능은 면허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윤리적으로 통제받는 전문직능인으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문직은 필수성, 배타성, 복잡성이라는 3가지 전문직 구성요소로 이미지 메이킹 된다. 3가지 요소를 모두 구비해야 전문직으로서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는데, 이중 한 가지만 부족하더라도 전문직으로 존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전문직으로 존속하기 위해선 새로운 지식체계를 계속 만들어내고 유지 심화 발전시키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약사직능은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라 사회제도와 시대적 상황, 경제발전 수준 등에 따라 여러 단계를 거쳐 변천 발전되어 왔다. 경제성장, 연령별 인구 구성비율의 변화, 보건의료 인력의 배출규모 등에 따라 국민의 의료요구도 다양해지고 고급화되어짐에 따라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기능과 역할도 달라지게 된다.

현대약학의 태동기인 1950년부터 80년 약국의료보험 시대, 2000년 의약분업 시대를 거치면서 약사직능은 물질 중심의 시대에서 환자중심의 약료시대로 전환, 발전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약사직능의 변천과 지향점은 WHO의 7-STAR 개념에 잘 나타나 있다. 7-STAR에서 약사는 보건의료인, 의사결정자, 의사소통능력자, 지도자, 관리자, 평생 학습자, 교육자로서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데 약사는 이와 같은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약물안전사용 관리자, 약물요법 전문가, 지역보건증진 선도자, 의약품 정보 제공자, 셀프케어 지도자, 의약품 정보제공자라는 총체적 역할을 통해 필수성, 배타성, 복잡성을 완성해가는 지역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약사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약국은 약사가 수여의 목적으로 의약품의 조제 판매를 행하는 보건의료서비스 기관이다.

약국은 세계 최고의 접근성, 약사 취업인력의 70% 이상 개국 편중성, 1약사 1약국 원칙과 기관분업을 통해 뒷받침되는 독립성 등 3가지 특성으로 가지고 있다.

미래약국 서비스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처방보제 및 투약관리 분야에서 업무 표준화와 GPP제도 도입, DUR 서비스 제공 등이 이뤄져야 한다.
2. 환자지향형 약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3. 셀프케어에서 지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준비해야 한다.
4. 재택의료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등 노인환자에 대한 케어, 특히 거동불편자에 대한 재택의료 서비스 개발과 보험수가 인정 노력이 필요하다.

5. 약국시설의 전산화, 대형화, 약국인력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제약산업계의 미래화 전략



최재희(33회)
건일제약 기획본부장

제약산업은 북미, EU, 일본 시장의 비중이 높은 선진국형 고성장산업으로, 세계 의약품 시장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8,750억달러로 지역별로는 북미 42%, 유럽 32%, 일본 11%, 남미 5%, 기타 1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시장의 경우 약 13조원 규모로 세계시장의 약

1.5%에 불과하다. 완제의약품을 생산하는 국내제약사는 약 250여개 내외이고, 이 중 연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곳은 전체 제약사 중 약 16% 수준인 40여개 내외이다. 또한, 국내 제약시장의 전체 생산실적은 14조 8천억원으로, 연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제약사가 전체 의약품 생산실적에 차지하는 비중은 60% 정도이다.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로 유명한 화이자의 경우, 1년 매출이 무려 69조원이었으며, 국내 제약산업의 전체 생산실적은 화이자의 1/4에 불과하다.

최근 국내 제약산업은 정부의 지속적인 약가인하 압력과 FTA 체결을 통한 본격적인 국제 경쟁, 의약품산업 유통과정 투명화정책 등으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신약 개발 여건이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약사간 M&A가 활성화 추세에 있다. 2004년 프랑스 제약업체 사노피가 아벤티스를 인수하였고, 화이자는 와이어스를 인수하면서 백신과 바이오부문의 역량을 강화하였다. 국내 제약산업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M&A가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장환경과 정부정책 변화 등으로 제약기업들은 다양한 형태로 경영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제약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한 주요 경영전략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Mega Pharma. :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의약품을 다수 보유하고, 일정한 지위를 획득한 Total 신약개발 기업 (Pfizer, GlaxoSmithKline 등)
2. Specialty Pharma. : 우수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일정한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력을 지닌 신약개발 기업 (Allergan, Celgene 등)
3. Basic Drug Pharma. : 기초, 필수약품 등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업(백신, 수액제, 혈액제제 등)
4. Generic Pharma. : 품질이 높은 후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판매하는 기업
5. OTC Pharma. : Self-medication 대응, OTC 중심으로 개발하는 기업

Global Standard형 연구개발 및 임상경험 기초과학 분야의 Scientific Basic 부족 등으로 세계적인 제약기업들과 경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 제약기업은 셀트리온, 펜믹스 등의 CMO 및 CRO, R&D Venture 등으로 전문화, 집중화를 통한 지속성장가능 모델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항상 변화에 따른 위기와 기회는 함께 다가온다. 피할 수 없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위기에 빠질 것인지, 아니면 변화를 기회와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지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또한, 이런 변화와 신약 개발 전주기를 이끌고 갈 약대생의 미래는 약학을 기반으로 한 다각도 경영 마인드의 배양에 달려있다고 본다.



약사의 전문성과 직능 향상을 위한 제언



박기배 (20회)
대한약사회 부회장

의약분업이 안정적 정착단계를 지나 성숙기로 접어들고 있는 현재 약계는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와 관련된 약사법개정, 신설약대 증원에 따른 약사인력 과잉배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쌍벌제 시행, 의약품관리로 인하여 따른 조제료삭감, 의약품 가격인하 등의 문제와 맞부딪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의 도래, 건강보험재정 위기, 약대 6년제 제도 시행, 약대 6년제 학제 개편에 따른 새로운 약사국가고시 과목의 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활성화 정책 등 또 다른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약사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해결과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새로운 회무철학과 약사직능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약사는 복약지도, 약력관리, 의약품 정보제공은 물론 조제과오방지 등 약의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여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지역주민 건강센터의 역할을 다하는 건강관리약국을 운영하고, 6년제 약학교육과 약사국가시험의 재검토 및 연수교육의 내실화를 통해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약사들을 양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이에 약사직능의 업그레이드, 새로운 약사업무 영역의 개척, 새로운 사회적 지위의 획득과 연결되고 약사의 전문성과 직능 향상을 위해서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로 약사가 의료인에 편입되도록 의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약사가 의료인으로 편입되어 약국이 의료제공시설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약사가 의료종사자의 일원으로서 의와 약이 하나의 팀으로서 의료를 행하는 팀의료를 원활하게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외국과 같이 재택의료와 같은 총체적인 의료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해야 한다.

일본도 약사가 의료인으로서 편입되어 팀의료를 실현시켜 재택환자 긴급방문 약제관리지도료, 재택환자 긴급 시 공동지도료, 퇴원 시 공동지도료, 조제정보 제공료, 복약정보 제공료 및 후기고령자 종말기 상담지원료가 조제수가에 반영되고 있기에 앞으로 약사직능의 다변화와 제고를 위해서 약사가 의료인으로 편입되는 의료법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DUR과 약력관리가 약국 내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DUR은 약물사용의 안전성, 적정성 및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약제비의 절감 효과를 가져 오며 의약분업의 기대효과를 현실화 할 수 있어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약사의 처방검토 사항을 근간으로 하는 DUR 제도는 약사직능의 정체성 확립과 더불어 보건의료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약사는 이를 현실적으로 수용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또한 의약분업시대를 맞아 환자의 약력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각 환자의 약물요법의 추이를 기록해서 필요시에 검색할 수 있도록 관리 보존하는 것을 약력관리라 한다. 환자가 복용 중인 처방의약품,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한약, 체질과 질병 특성 등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약력관리 차트가 완성되어 활용되어진다면 처방과 조제 전 병용금지 약물차단을 위한 처방감사시스템인 DUR과 더불어 약사의 복약지도는 최상의 약료서비스로 소비자에게 다가 갈 것이며 궁극적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약국 경영활성화의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다. 이에 약국에서는 환자에게 인터넷 보험청구 전산프로그램 상에서 DUR시스템과 약력관

리시스템을 병용한 처방검토업무와 약력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약사의 전문적 직무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약사의 조제업무는 의약분업 과정을 거치면서 약사는 처방검토업무와 복약지도 및 약제교부와 같은 전문화된 약료 서비스를 충실하여야 하는데 계수, 계량, 분할과 같은 단순 조제행위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약사의 전문 직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조제현장에서 단순조제 행위를 보조하는 조제보조원 제도를 도입해서 약사가 조제실 밖에서 환자들을 대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 의약품판매와 복약지도, 약력관리 등 무형의 전문화된 약사직무로 좀 더 진전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약대 6년제의 발전적 시행방안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의약분업의 실시에 따른 약사직능의 질적 변화와 개선 필요성은 약대 6년제 실시로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약대 6년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어야 한다.

약대 6년제 실시를 계기로 기존 약학교육의 재정립뿐만 아니라 병원, 약국에서 실 무실습 교육의 내실화와 이를 지도할 실무지도약사(프리셉터)의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수립, 기존약사들의 재교육을 통한 6년제 졸업생들과의 학문적 차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전개되어야 하고, 새롭게 출현되고 있는 각종 신약과 약물요법에 대한 기존약사의 재교육 사업 등은 기존의 약학대학 교육체계나 약사회 연수교육체계로는 충분히 실현하기가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6년제 추진과제와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가기 위해서는 약사연수원의 설립이 조속히 추진되어야함은 물론 사이버연수센터도 본격 가동 시켜야 하며 학계와 연계해서 약평원을 통해서 약사국가고시와 연수교육의 발전적 방안을 수립하고 프리셉터도 양성해야 할 것이다.



희망의 등대



김기명 (18회)
편집위원장

명문 중앙대약대
새롭게 전개하는 동문회 장학기금사업을
희망의 등대라고 표현하고 싶다.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바라며 ...



章山 허인회 교수의 中英對照



허인회 (4회) 명예교수

▶ 가도(賈島)의 시

청고(淸高): 북소리 들으며

城頭疊鼓聲(성두첩고성) 성벽위에서 반복해서 북소리 울리고
 城下暮江淸(성하모강청) 성벽아래서 저녁 강물이 맑네
 欲問漁陽攄(욕문어양섬) 어양곡에 대해 묻고 싶으나
 時無柶正平(시무치정평) 오늘날 세상에 치형이 없네

Listening to the Drum (J)

Above the city wall, a drum repeatedly sounds;
 beneath the city wall, the evening river is clear.
 I wish to ask for the “thrice-repeated Yu-yang beat”,
 But there is no Ni Cheng-p’ing in the world to-day!

한자의 뜻 疊鼓聲; 반복해서 치는 북소리. [衛公兵法]에 [鼓三百三十三槌(퇴;망치)爲一通. 鼓正角動, 吹十二聲爲一疊]이 있다. 漁陽攄; 漁陽攄過로 鼓曲名이다. 攄은 섬점할 섬, 잡을 삼, 칠 참으로 쓰인다. 攄過(참과)란 말이 있는데 擊鼓의 고름[調]을 말한다. 攄은 攄過攄라는 풀이도 있다. 영문은 이것으로 번역함. 柶正平; 사람 이름. 柶衛를 말한다. 어양곡의 鼓調攄를 배우고자 하나 當世에 치형 같은 사람이 없음을 애석하게 여긴다는 사람.

해설 義山이 內心苦悶하다가 그 장기간 쌓인 鬱憤(울분)을 자연스럽게 흘려버리고 城頭에서 鼓聲을 들으며 치형의 擊鼓를 연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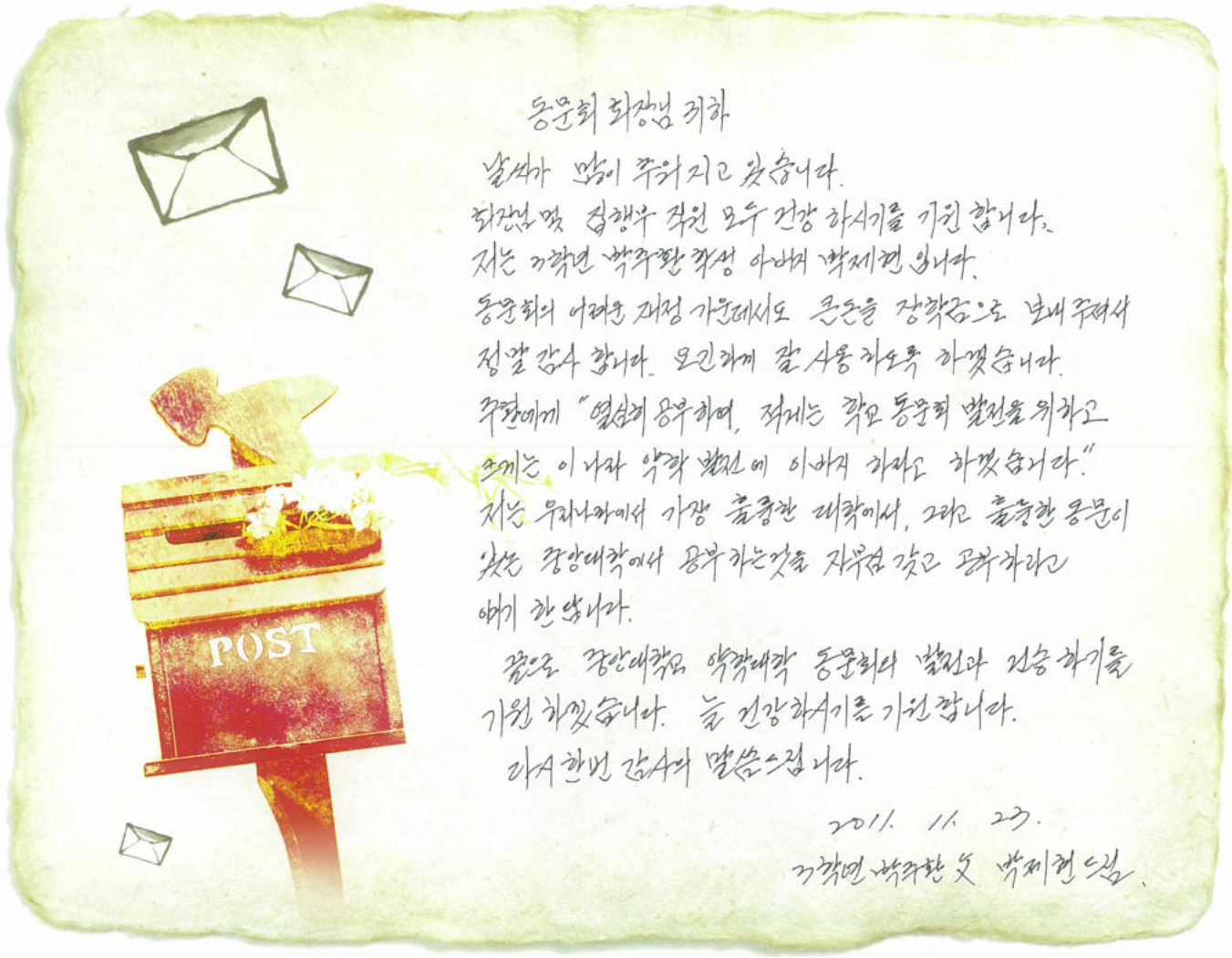


2011년도 2학기 장학금 수여식



■ 동문회장학금 수혜자 명단

장학금명	장학금액	전공	학번	학년	성명	학점
본동문회	3,000,000	약학	20082800	4	정희예	4.00
본동문회	3,000,000	B반	20095762	3	박주환	3.68
본동문회	3,000,000	B반	20095838	3	김영주	3.65
여동문회	500,000	약학	20082776	4	이소영	4.00
여동문회	500,000	제약학	20082798	4	정준영	4.00
안산동문회	500,000	A반	2009545	3	김인혜	3.43
부산동문회	500,000	제약학	20082728	4	남명화	3.84
약제반동문회	1,000,000	제약학	20082751	4	송은섭	3.85
약품물리반동문회	1,000,000	제약학	20072776	3	정재훈	3.92
나사모동문회	1,000,000	약학	20085464	4	홍선희	3.71
한미약품	4,799,000					
	18,799,000					



동문회 회장님 귀하

남자가 많이 주워 지고 있습니다.
 회장님 및 집행부 직원 모두 건강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저는 7학년 박주환 학생 아버지 박제현 입니다.
 동문회의 어려운 재정 가운데서도 큰돈을 장학금으로 보내 주셔서
 정말 감사 합니다. 모인 만큼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한에게 " 열심히 공부하여, 저에게는 학교 동문회 발전을 위하여
 모이는 이 나라 약학 발전에 이바지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대학에서, 그런 훌륭한 동문이
 있는 중앙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을 자랑스런 것과 무척 자랑
 하게 합니다.

앞으로 중앙대학의 약학대학 동문회도 발전과 번영하기를
 기원 하겠습니다. 늘 건강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1. 11. 27.

7학년 박주환의 아버지 박제현 드림.

회비내역



2012년도 1월 15일까지

■ 회장단회비 (₩600,000)

기수	성명	기수	성명
13	서국진, 박동규, 문재빈, 안병식, 이종각, 이상길	25	최두주, 김광호, 이내홍, 김희섭
15	박석동, 임영식, 이상용, 박원봉	26	한갑현, 최민규, 오옥희, 김정수
16	조기현, 김광식	27	김정호, 박영달, 곽나윤, 오홍설, 이원일
17	김성지, 신상직, 장재인	28	이병천, 양덕숙, 이상수, 이해룡, 이영주
18	김기명, 전광우, 정명진	29	한일룡, 현상배, 이진자
19	이경욱, 김경오, 옥태석, 이창욱	30	김광식, 도민숙, 김상의, 백영주
20	이상일, 정찬현, 김홍진, 김현태	32	정선종, 조양연
21	김수배, 김중효, 홍종오	33	조준상, 최재희
22	유대식, 강희윤, 최광훈, 전일수	34	김보원, 한일권
23	정덕기, 하충렬	49	김원호
24	이규삼, 함한성, 함삼균, 황규진		

■ 이사회비 (₩150,000)

기수	성명	기수	성명
5	김채윤	17	양희익
6	김동열, 박정배, 임철부	18	강응모, 김애경, 조중형
7	김정부, 박명신, 서명규, 유영후, 정재일, 김영덕	20	박기배, 이상일, 이신규, 최석중
8	김희영, 박번일, 조의환, 한석원, 임상목	21	김중효, 이상준
9	김익섭, 박성학, 박장우, 이근배	22	이현희, 한상훈,
10	박호일, 방순환, 변도문, 이홍수	23	박종화, 박희용
11	김미자, 박희경	24	갈원일, 김태두, 윤규형, 정종근
12	서태욱, 심재웅, 이관하, 이성우, 조택상	26	백낙기, 진희익, 윤용혁
13	구연홍, 김병현, 문재빈, 이우식, 황근성	27	이무택, 최충식, 현기원
14	양인승, 유효성, 조양연, 홍성철, 현수홍	28	고재호, 장원규, 전금용
15	권영선, 박석동	37	전형수
16	백승복		

■ 일반회비 (₩30,000)

(6기) 김명기, 유승균, 오세민, 강천식, 이원걸, 김태형, 이풍기, 심익명, 김연빈, 유복상 (7기) 정연홍, 조경신, 윤태정, 이주학, 이상현, 김태중, 유효희, 박재식, 유중현, 전승규, 박정현, 장남수 (8기) 강윤구, 서동섭, 유재우, 홍봉표, 강창호, 엄규중, 정재영, 안덕기, 허정자, 최병준, 김형이, 이성규, 김희선, 정재용, 조수현 (9기) 최영대, 권오성, 장성익, 김학진, 이경주, 김수홍 (10기) 심수일, 이원일, 이장열 (11기) 구자역, 양계창, 이기호, 전창환, 이석태, 차영진, 손영수 (12기) 유건수, 홍근수, 오형철, 강윤택, 임순성, 김종만, 우홍길, 홍정덕, 현병호, 박흥식, 이태건, 최덕구 (13기) 전인식, 유용상, 김신미, 우동진, 김인호, 신석준, 유희동 (14기) 이용성, 최종택, 전영표, 우영철, 현혜경, 김윤국, 김동원, 김명수, 서정애, 구종모 (15기) 유태형, 이명숙, 남석우, 정육주, 박태호 (16기) 이규주, 신규연 (17기) 원종천 (18기) 유덕희, 여운숙, 육득윤, 이복숙, 양만기 (19기) 남윤수, 송택용, 조안제, 배영덕, 장호성 (20기) 윤춘수, 임경원, 남덕진 (21기) 이훈영, 송진용, 노재하 (22기) 박동우, 이명옥, 김태일, 김중궁, 이순명, 심재호 (23기) 오신환, 나용태, 은성기, 박상진, 최경선 (24기) 한성엽, 강창수, 최금순, 홍용기, 임철빈, 이범도 (25기) 김창현, 이종인, 김두수, 조경래, 백광현, 이영제 (26기) 조종래, 최옥숙, 손영상, 나중우, 신현동 (27기) 염승호, 장영희, 변옥희, 양건모, 문연숙, 한규정, 박상규 (28기) 이병수, 양창규, 김광선, 한성호, 이석원 (29기) 한규인, 김중선, 장우성, 이성문, 박춘화, 김현태 (30기) 김영림, 유애순, 조민숙, 조덕희, 이경숙, 강승익, 고은숙, 김선경, 강현수 (31기) 오세정, 구상미, 유인숙 (32기) 채영주, 김광복, 김형기, 김현경, 정세진 (33기) 최현정, 유정순, 정미숙, 이종탁 (34기) 김영미, 김중국, 김용수, 박상권, 정호섭, 박성민, 강용남 (35기) 김진, 김성훈 (36기) 장문정, 이태경 (37기) 한덕희, 전상인 (38기) 정필련, 곽분임 (39기) 방근철 (44기) 이승준 (46기) 이영주, 김윤경 (49기) 박아연 (51기) 장진



발전기금 조성 내역

발전기금 현황 (2012. 1. 15 까지) **총 37억 3천 5백 6십만원**

조성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www.pharm.cau.ac.kr)나 동문회보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직역별 통계 (단위 : 만원)

교 수 총 27,660 만원

교 내	손의동(1700)	김대경(1500)	황완균(1000)
	김하형(1000)	심상수(1000)	임채욱(1000)
	임철부(1000)	김미영(1000)	최영욱(1000)
	이민원(1000)	김창중(900)	황광우(800)
	손동헌(800)	천영진(800)	염정록(700)
	최형균(700)	이재휘(700)	조사연(700)
	홍순각(600)	오경택(500)	이도익(500)
	김홍진(500)	이광표(500)	김기호(500)
	허인회(500)	한상범(500)	김종갑(500)
	민경훈(500)	민혜영(500)	김현정(500)
타 교	김진학(1000)	제현동(500)	김동석(300)
	오유진(300)	주왕기(300)	임세진(300)
	염윤기(300)	석대은(300)	권광일(300)
	정지훈(200)	한성순(100)	김형춘(360)

학 생 총 5,350 만원

역대 동문회장단 총 32,900 만원

조의환(11000)	권혁구(1000)	유영후(1000)	안병식(1000)
박종화(1000)	박호일(1300)	정재일(500)	이기안·노신희(500)
임상욱(1000)	김연희(500)	이규진(500+500)	유정사(1000)
정덕호(500)	황공용(500)	황문상(500)	강옥희(500)
서국진(500)	윤대봉(500+500)	박석동(500)	정명진(500)
김경오(500)	이규식(500)	김현태(500)	김종렬(500)
김승재(500)	김종성(400)	김승태(400)	정찬현(500)
김수배(300)	이호섭(300)	박계환(300)	이경욱(300)
김영식(300)	허근희(300)	박찬희(300)	노덕재(300)
조기현(300)	양희익(300)	이내홍(300)	김명용(1000)

단체 기부 총 59,490 만원

일동제약주식회사(50000)	중삼친목회(300)
약대기금(3200)	약품물리화학동문회(1740)
기업체후원(700)	7회 동기회(500)
7회 약우회(500)	12회 동문회(500)
1회 동문회(400)	미생실험반 동문회(300)
91학번 친목회(이용준 외, 300)	중앙대11회 40주년 기념(300)
2회 졸업생(200)	약대3기동기회(200)
서울공직중대약우회(200)	64예중회 회원일동(100)
미주(L.A.) 3회 동기회(50)	(주)한미홀딩스 (479.9)

학부모 및 기타 기부 총 60,800 만원

한중강(02 한인빈 학부모, 300)
 송병준(10/9 심포지엄 연사,100)
 정형식(60,000)
 중앙대 50계단회(대표:정영복) (100)
 오호정(300)

개인·부부 동문 총 242,500만원

■ **기수별 통계** (단위 : 만원)

1회 4명	손동현(800+3000) 홍흥만(300)	이광표(500)	오유진(300)
2회 6명	고두흔·박명자(700) 황인규(300)	홍순각(600) 황재수(200)	김길수(300) 한성순(100)
3회 4명	김용옥(35000) 조영만·이정재(50)	한만우(1000)	김석재(300)
4회 8명	김기호(500) 박노일(300) 해서봉열·나광자(500)	허인회(500) 이연수(300)	김현용(300) 천홍기(300)
5회 4명	이해석·강태일(1000) 정훈교(100)	박명자·고두흔(700)	이송학(300)
6회 13명	임철부(1000) 김종구(300) 안병한(300) 홍병석(300) 이현영(300)	김경희(300) 박정배(300) 유상열(300) 이준창(100)	김동열(300) 신정숙(300) 추의호(300) 홍성호(100)
7회 24명	이기황(1150) 김옥남(500) 이기안·노신희(500) 김정웅(300) 박옥규(300) 인고길(300) 한철희(300) 권기동(100)	유영후(1000) 이양현(500) 김영일(300) 김정재(300) 유윤재(300) 임종홍(300) 정연홍(300) 이준종(60)	강승안(500) 정재일(500) 김정부(300) 박명신(300) 이능세(300) 차승현(300) 조경배(300) 이정자·조영만(50)
8회 19명	이백천(1500) 한석원(500) 문옥재(300) 윤주섭(300) 정재용(300)	임상묵(1000) 최병준(400) 박성애(300) 이조열(300) 주왕기·김희재(300)	김형이(500) 최재욱(300) 박찬수(300) 장영재(300) 허근희(300)

	김홍자(300) 조의환(11000)	배영애(100)	신현우(100)
9회 10명	권혁구(1000) 서황석(500) 박성학(500)	김홍래(1000) 이규진(500+500) 상병준(300)	김영부(500) 노신희·이기안(500) 이근배(100)
10회 13명	방순환(12000) 김광일(500) 조규동(300) 정송수(300) 서정목(300)	박호일(1300) 이대운(300) 이양원(300) 정수길(300)	유정사(1000) 정영기(300) 장영조(300) 김삼균(300)
11회 13명	김창중(900) 황공용(500) 민대식(300) 김정길(100) 송병기(100)	정덕호(500) 홍근자·남기택(500) 박상희(300) 최옥출(100)	황문상(500) 김승업(300) 박찬희(300) 이철규(50)
12회 24명	박영찬(1000) 심재웅·구옥재(1000) 김 구(1000) 강옥희(500) 노덕재(300) 이정희(300) 김대건(300) 민명임(100)	김용환(1000) 김승배(1000) 이성우(500) 우준하(500) 우홍길(300) 이호섭(300) 문혜성(240) 이원주(100)	최덕구(1000) 황순오(1000) 남기택·홍근재(500) 조택상(500) 염윤기(300) 최병호(300) 최창목(100) 김초성(100)
13회 12명	안병식(1000) 서국진(500) 박동규(300) 김병현(500)	이종각·박종애(500) 조성복·홍순경(500) 윤창현(300) 서효석(300)	문재빈·김애련(500) 김중성(400) 조중목(300) 김신미(10)
14회 8명	김명웅(1000) 윤대봉(500+500) 정진모(300)	정도연(1000) 故이규식(500) 박기진(300)	김중렬(500) 김원순(300) 김윤국(500)
15회 9명	조찬휘(500) 안민철(300) 구옥자·심재웅(1000)	김용의(300) 이인석(300) 박영경(300)	석대은(300) 위혜주(300) 황인영(300)
16회 13명	강명채(500) 장건(300) 김선기(300) 조기현(300) 권희문(100)	홍순경·조성복(500) 최광식·전순희(500) 이상규(300) 윤영로(200)	박종애·이종각(500) 김광식(300) 한인희(300) 김성광(100)
17회 12명	김인형(500) 신상직(500) 유종관(300) 정갑진(300)	선우영환·방금숙(500) 김대희(400) 장재인(300) 주완표(300)	김민수(500) 양희익(300) 전상훈(300) 최해광(300)
18회 9명	강응모·성낙순(500) 김기명(300) 김창길(300)	김윤순(500) 조중형(300) 박계환(300)	정명진(500) 김애경(300) 남애숙(200)
19회 12명	김경오(500) 권영훈(300) 옥태석(300) 최종숙(300)	권창호(500) 김동희(300) 이경옥(300) 유환성(300)	신성희(500) 박효식(300) 이창욱(300) 권광일(300)
20회 25명	임경원·이현숙(1,000) 정찬현(500) 김홍진(500) 김종갑(300) 송창수(300) 윤춘수(300) 임구래(300) 차재근(300) 김형춘(360)	이상일(500) 김영섭(330) 송열호(300) 오상동(300) 이신규(300) 정영수(300) 최운환(300)	방금숙·선우영환(500) 김현태(500) 강혜옥(300) 서종원(300) 유영내(300) 이극선(300) 지태현(300) 정영수(300)

21회 29명	이세진(500) 백운경(550) 이병규(500) 이상준(500) 홍종오(500) 한성희(300) 송진용(300) 김병무(300) 김대일(300) 신길득(300)	백기홍(500) 박제천(500) 박전희(500) 최병철(500) 김정기(300) 안병헌(300) 이진배(300) 김수배(300) 강성무(300) 전명선·김민숙(600)	이상일(500) 김중호(500) 지기봉(500) 장철숙(100) 김성만(300) 신상길(300) 유승률(300) 어경남(300) 이규섭(300)	29회 15명	김은진·이재희(500) 강철선(300) 안성진(300) 이종민(300) 장우성(300)	이 준(310) 김영자(300) 유종운(300) 서경원(300) 정진호(300)	강대용(300) 손병로(300) 유인석(300) 이 철(300)
22회 19명	손의동(1700) 장상대(500) 이준상(500) 한만영(360) 박동우(300) 최광훈(300) 이상돈(100)	장용운(800) 김홍진(500) 유대식(500) 강희윤(300) 전일오(300) 심재호(300) 전명선·김민숙(600)	정진호·강영희(500) 고석순(500) 오황영(400) 김철수(300) 이정석(300) 이영욱(300)	30회 19명	김광식·윤기숙(500) 김미영(300) 김현학(300) 조덕희(300) 황유세(300) 서봉호(100)	이장무·김영희(500) 박복자(300) 이인재(300) 천세영(300) 고석일(300)	조순연·방만성(500) 신일균(300) 장부자(300) 최병원(300) 박종진(300)
23회 19명	박종화(1,050) 공인호(300) 김항만(300) 이승해(300) 임준석(300) 강호영(100) 나용태(300)	권석형(500) 김수중(300) 양재업(300) 이원길(300) 정덕기(300) 이정대(100)	이도익(500) 김영식(300) 정원국(300) 임상규(300) 조근태(300) 박희용·김미경(500)	31회 6명	이현숙·임경원(1,000) 변동성(300)	김하형(500) 박건규(50)	김진홍(300)
24회 23명	최영욱(1000) 최재윤·김윤경(500) 임무호(500) 오동근(300) 이영주(300) 홍용기(300) 이규삼(100)	윤규형(500) 조중래(500) 함삼균(350) 윤원철(300) 정상수(300) 황규진(300) 김태두(300)	김관식(500) 김승재·김희석(500) 이범도(310) 이광섭(300) 김상현(300) 함한성(300) 윤세형(240)	32회 7명	고은미(300) 서수경(300) 손수정(200)	박은미(300) 채영주(600)	조양연(300) 서용욱(240)
25회 15명	이민원(1,000) 이재희·김은진(500) 고성권(300) 이내홍(300) 최두주(300)	손현우(600) 조석현·임홍욱(500) 김영식(300) 이현수(300) 김춘규(400) 김학철(300)	생낙순·강응모(500) 위성건(500) 김희섭(300) 조순현(300) 권세형(300) 한갑현(500)	33회 4명	이재휘(700) 박재훈(240)	임희원(300)	강석연(300)
26회 19명	심상수(1000) 이창훈·이숙희(500) 김영후(300) 최민규(300) 선우일원(300) 조용백(300)	황완균(1000) 하재일(500) 라중우(300) 문형철(300) 이영준(300) 김학철(300)	김성철(300) 김상현(300) 함한성(300) 윤세형(240) 생낙순·강응모(500) 위성건(500) 김희섭(300) 조순현(300) 권세형(300) 한갑현(500) 김안식(400) 진희억(300) 백낙기(300) 이종량(300) 윤광중(300)	34회 5명	민성철(300) 한일권(300)	배규환(300) 김영미(20)	이선우(300)
27회 26명	안산 79학번 동기회(김덕진, 오순용, 오홍실, 이상필, 이창오, 이현수, 한봉길, 최면용) 각각 300씩 (총 2,400) 박수길·이정애(500) 최기선(310) 남상진(300) 안희영(300) 오영돈(300) 이무택(300)	방만성·조순연(500) 곽나윤(300) 박영달(300) 양건모(300) 현기원(300) 최충식(300)	김영혜·최광배(500) 김정호(300) 변영신(300) 유기조(300) 홍인숙(300) 이선애(100)	35회 3명	황광우(800)	곽정근(300)	권준한(300)
28회 27명	임채욱(1000) 김유곤(500) 이영주(500) 김영희(300) 양덕숙(300) 이해룡(300) 전금용(300) 한용문·김미재(300)	이숙희·이창훈(500) 고재호(120) 김광선(300) 박우중(300) 이병천(300) 임세진(300) 조상오(300) 박용석(100)	김성욱(500) 김희석(300) 조순현(300) 권세형(300) 한갑현(500) 김안식(400) 진희억(300) 백낙기(300) 이종량(300) 윤광중(300) 김윤경·최재윤(500) 김희식·김승재(500) 김미경·박희용(500) 안희규(300) 이용해(300) 장원규(300) 조효금(300)	36회 7명	안영윤(300) 김동석(300) 방극상(50)	우경애(300) 김용규(300)	임성호(300) 박선영(200)
				37회 6명	정병욱(300) 오상희(100)	방준석(300) 김학림(100)	정지훈(200) 한덕희(100)
				38회 5명	오경택(500) 제현동(500)	박웅석(300) 박양혜(100)	조재형(300)
				39회 4명	민경훈(500) 양성준(100)	박종호(300)	박종혁(300)
				40회 2명	박성욱(500)	한국약품(이병두, 300)	
				41회 1명	구영준(300)		
				42회 1명	이창경(100)		
				43회 3명	신명숙(300)	강규태(400)	김중호(100)
				44회 2명	김수길(300)	문상희(100)	
				49회 1명	김원호(500)		

■ 약대R&D센터 네이밍도네이션 (단위 : 만원)

총 122,182 만원	
교수	손의동(300)
동문	김명섭(10,000+10,000), 정도연(20,000), 조정기(300), 양성삼(300), 안대훈(200), 정민식(100), 갈원일(100), 황재수/박희숙(100) 황대현(100), 최창조(50), 엄재우(12), 고기현(10), 조이환/이성우(10,000)
직원	조주형(300), 우건식(300), 안미현(10)
기업체	(주)그래미(대표 남종현) (20,000)
서흥캡셀(대표 양주환/명예박사) (50,000)/약대발전기금	

중대 약대 후배사랑 물방울 장학금 기부운동

中央大 약대 선배들의 후배사랑 ... 교수 21명 月1만원 종신기부

치솟는 물가와 비싼 등록금으로 허리가 휘는 후배들을 돕기 위해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들과 동문들이 발벗고 나섰다.

중앙대는 약학대학 교수진을 중심으로 약학대학 졸업생들이 매월 1만원씩 기부하는 중대 약대 후배사랑 물방울 장학금 기부운동을 전개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장 먼저 기부운동의 방아쇠를 당긴 이들은 학생들의 처지를 가장 잘 아는 약대 교수들.

약학부 학부장인 황완균 교수 등 20명의 약대 교수들이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 매월 월급에서 1만원씩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기부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정년퇴직하는 순간까지 기부하는 사실상 종신기부다.

황완균 교수는 "동문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지만 그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이런 기부운동을 마련했다"며 "행사의 취지에 공감해 기부를 시작하는 동문들이 하나둘씩 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대 관계자는 "한방울의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월 1만원이라는 작은 기부에 7,000명의 동문이 함께한다면 기적처럼 큰 나눔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앙대 약대 동창회는 이미 지난해 6월 완공한 약학관 건립을 위해 약학대학과 공동으로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60억원을 모금해 동문 파워를 자랑한다. 동창회는 발전기금조성위원회의 후속 사업으로 후배사랑 물방울 장학금 기부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갑현 중앙대동문회 사무총장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동문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후배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소액이지만 다수가 참여하는 이 기부운동은 의미가 남다르며 앞으로 동문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기사 중 -

편집후기

사랑한다 ... 사랑한다 ...
모든 것 네가 가진 모든 것
네가 지닌 모든 것
네가 하는 모든 것
네가 해야 할 모든 것
다! ... 사랑한다 ...
사랑한다 ...

〈아내에 바치는 노래〉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오랜 숙원이던 약학관 준공, 작은 밑일이 떨어져 옥담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볼 수 있었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결정적인
도움을 주신 분들의 그림자에 숨어서라도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명성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신발끈 고쳐
매는 일에도 서둘러 동참하리라.

박희용(23회) 편집위원

올해는 유난히 감사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다.
입으로 은혜를 말하는 사람은 믿음의 적다 (口惠之 人鮮信)
교묘한 말과 알랑거리는 얼굴은 인이 적다 (巧言令色 鮮矣仁)
옛말이 그른 적이 지금까지는 없다.

한갑현 (26회) 편집위원

약사사회가 전향적 협의로 시끄럽다.
원칙이나 실리냐의 싸움에서 약사직능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과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본다.
동문 선후배님 새해 소원 성취하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조양연 (32회) 편집위원



Cyproheptadine
포만중추억제
- 식욕증진효과

Carnitine, Lysine
필수 아미노산
- 영양소의 흡수 대사

Cyanocobalamine
비타민 B12
- 조혈기능 관여

직접적인
식욕증진 효과
+
영양분의
흡수대사 촉진

- 맛있게 먹어본지가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고 입맛이 없으십니까?
- 밥 안먹는 자녀 때문에 고민 이십니까?
- 저체중과 성장부진으로 고민이십니까?



**Appetite stimulant for better
Quality of Life**

SAMJIN

삼진제약주식회사
www.samjinpharm.co.kr

성분 및 함량 : 1캡슐 중
오로트산시프로헵타딘(식약청고시).....1.5mg
dl-염산카르니틴(식약청고시).....150mg
염산리신(약전).....150mg
시아노코발라민(약전).....1mg
효능·효과 : 식욕부진, 성장부진
포장단위 : 100C

용법·용량
성 인 : 1일 2회, 1회 1캡슐을 아침·저녁 식전에 8일간 복용, 이후 부터는
1일 2회, 1회 2캡슐을 아침·저녁 식전에 복용
소아(7~12세) : 1일 1회, 1캡슐을 저녁식전에 8일간 복용, 이후부터는 1일 2회,
1회 1캡슐을 아침·저녁 식전에 복용
소아(3~6세) : 1일 1회, 1/2캡슐을 저녁식전에 8일간 복용, 이후부터는 1일 2회,
1회 1/2캡슐을 아침·저녁 식전에 복용

"행복캡슐"

JW중외그룹이 세상의 건강한 미래를 담겠습니다

누가 알아주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단지 국민의 건강만을 생각하며 걸어온 66년.

모두가 건강한 세상을 꿈꾸며 신약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우리의 노력이 결실로 맺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신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쌓아온 R&D 기술력과 생명존중의 기업 정신을 바탕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웃을 수 있는 미래를 행복캡슐 안에 담겠습니다.



JW 중외그룹



QR코드로 새롭게 도약하는 JW중외그룹을 만나보세요!

아프지 마세요! 참지도 마세요!

펜잘큐가 있어요



심한 두통도,
그날의 아픔도 꼭 참는다고요?
이제 참지마세요. 펜잘이 있으니까요.
펜잘은 비피린계 성분으로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말고, 참지도 말고 - 펜잘큐
생리통에도 잘 듣습니다

참지 말고 -
펜잘큐정



두통
치통
생리통에 잘 들어요~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번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612호
전화: (02) 565-1700 팩스: (02) 564-1701
E-mail: capa21@hanafos.com
<http://www.caupharm.or.kr>